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h1>보도자료</h1> <h2>9월 6일(금) 조간 (9.5. 12:00 이후 보도)</h2>	
배 포 일	2019. 9. 5. / (총 15매)	과장 / 담당	전화
담당부서	감염병총괄과	이동한 / 권동혁	043-719-7120/7128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조은희 / 박숙경	043-719-7160/7162
	매개체분석과	조신형 / 이육교	043-719-8520/8562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 추석 명절 기간 가족, 친지 방문 증가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섭취

◇ 추석 성묘, 벌초,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증가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감염될 수 있는 진드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의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②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③ 물은 끓여 마시기
- ④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 ⑤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 ⑥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질병관리본부
KCDC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 특히 올해는 A형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서 조개류 등 음식물을 익혀먹고, 안전한 물 섭취, 그리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가족 중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A형간염 예방수칙 >

- ① 조개류 익혀먹기 (조개젓 섭취시 주의)
- ②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③ 안전한 물 마시기
- ④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 ⑤ A형간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받기
*B형·C형 간염 환자, 간경변, 혈액응고질환자
- ⑥ 최근 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매년 8월~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만성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신고수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환자 신고수	0.4	0.2	2.4	5.0	12.6	19	8.6	0.6	0.4

○ 가을철(9~11월)에 주로 발생이 증가하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성묘, 벌초,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아울러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날 수 있음
** SFTS는 참진드기에 물린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30% 내외임

<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 감염병과 더불어 벌 쏘임 또는 뱀 물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밝은 색 옷과 모자 착용, 풀숲 작업시 장화 착용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음식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2인 이상 집단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통계

1. A형간염 발생 현황
2. A형간염 발생 현황
3. 쯤쯤가무시증 발생 현황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현황
5. 참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
6. A형간염 홍보 포스터
7.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8.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포스터

붙임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통계

□ 제1군감염병 및 비브리오패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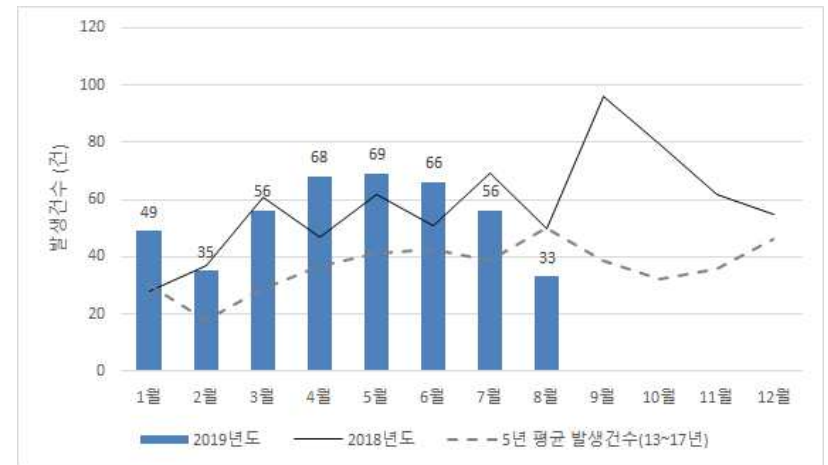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콜레라	장티푸스	파티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 패혈증
2018년	2	169	25	154	93	1,759	25
2019년	0	103	67	92	124	13,436	18

* 8.28 기준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 2019년도 8월까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건은 432건으로 2018년 동기간 405건 대비 6.6% 증가 추세



< 월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2013~201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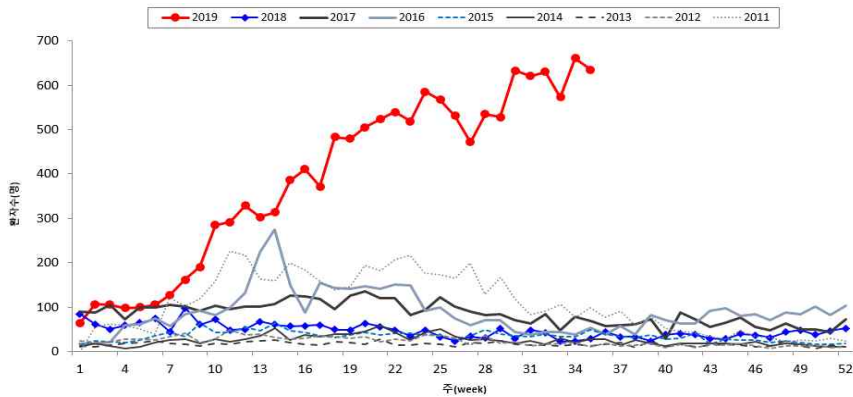
* 2019년 현황은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붙임 2 A형간염 발생 현황

□ A형간염 발생 현황

- '19년 13,766명이 신고('19.9.1. 기준)되어, 전년 동기(1,776명) 대비 675% 증가
 - (연령대) 평균연령 39세(중앙값 39세),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5%(30대 37.1%, 40대 36.4%)
 - * 연령별 현황 : 30대 5,112명(37.1%), 40대 5,008명(36.4%), 20대 1,906명(13.8%), 50대 1,218명(8.8%), 기타 연령 522명(3.8%)
- 주당 신고환자수는 연초 100명 내외였으나, 5월 이후 500건으로 증가하여 환자 증가세 지속됨. 24주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8주부터 다시 증가
 - * 주별 현황 : 24주 585명, 25주 567명, 26주 531명, 27주 472명, 28주 535명, 29주 528명, 30주 633명, 31주 621명, 32주 630명, 33주 573명, 34주 661명, 35주 635명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1~2019년 35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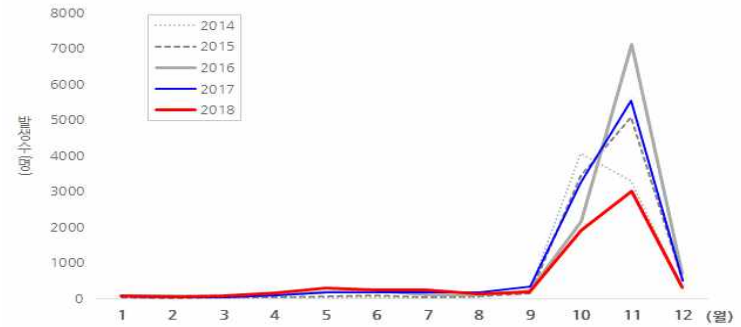


- (지역)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순이나,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음
 - * 지역별 신고건수 : 경기 4,288명, 서울 2,548명, 대전 1,973명, 충남 1,129명
 - **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사·도) : 대전 131.9명, 세종 112.1명, 충북 53.8명, 충남 53.2명
- (성별) 남자 7,685명(55.8%), 여자 6,081명(44.2%)

붙임 3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

□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

- 1994년부터 환자 발생 감시 시작, 매년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감소추세임
 - (연령별) 70대 이상(33%), 60대(27%), 50대(21%), 40대(10%) 순임 (2001-2018 누계)
 - (지역별) 경남(14.8%), 전남(12.8%), 전북(12.4%), 충남(11.3), 경기(8.7%)순임 (2001-2018 누계)
 - (월별) 9~11월에 주로 발생 (90% 이상) (2001-2018 누계)
 - * 환자 수 : '10(5,671명)→'12(8,604명)→'14(8,130명)→'16(11,105명)→'18(6,668명)
 - ** 사망자 수 : '12(9명) → '13(23명) → '14(13명) → '16(13명) → '18(5명)



<연도별 월별 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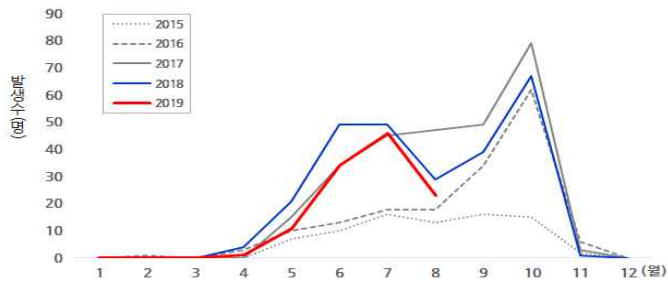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

붙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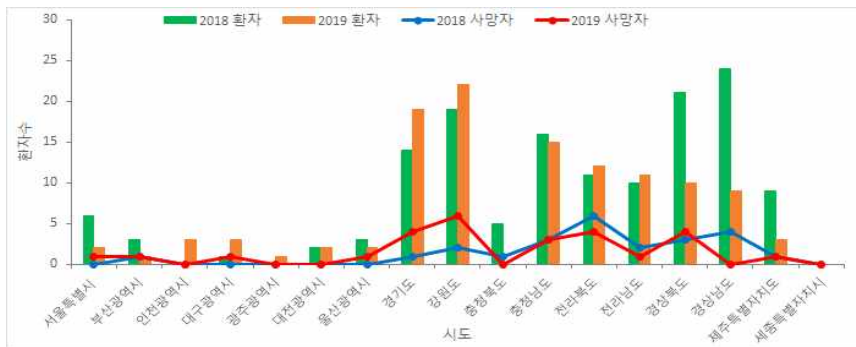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현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현황**

- 2013년 첫 환자 확인 이후 2018년까지 866명, 사망 173명(치사율 20.0%)
 - (연령별)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 (90% 이상)
 - (지역별) 경기(17.7%), 경북(15.2%), 강원(14.6%), 경남(8.8), 충남(8.4%), 제주(7.0%) 순으로 발생
- * 환자 수 : '13(36명) → '15(79명) → '17(272명) → '18(259명) → '19(115명) (8월 17일, 잠정통계)
- ** 사망자 수 : '13(17명) → '15(21명) → '17(54명) → '18(46명) → '19(27명) (8월 17일, 잠정통계)
- 2019년 8월 17일 기준 환자 115명, 사망자 27명(치사율 23.5%) 발생
 - 2018년 동기간 대비 환자 20.1% 감소, 사망 27명으로 치사율 증가
 - * 2018.1.1.~2018.8.17. (환자 144명 발생, 사망 25명, 치사율 17.4%)



<연도별 월별 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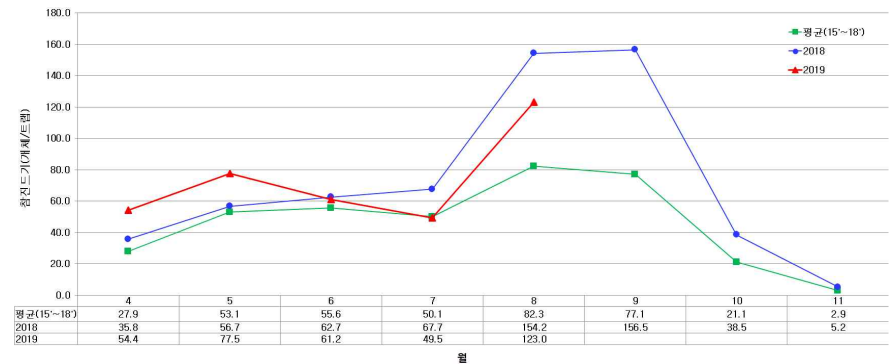
<지역별 SFTS 환자 발생 및 사망현황(19.8.17 기준)>

붙임 5

참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

- 감시목적: SFTS의 국내 유행 감시를 위한 매개 참진드기 밀도 조사
- 감시기간: 4월~11월(8개월)
- 감시주기: 월 1회(3주차 채집)
- 감시방법: 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참진드기 채집(감시 지정당 12개 채집기 설치)
- 감시지역 및 지정수: 11개 사·도(인천,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총 16개 지정
 - * 연도별 감시지점(2015년 10개, 2016년 11개, 2017년 및 2018년 16개)
- 감시정보 제공: 조사지점에서 하루 동안 채집된 참진드기를 한 대의 채집기에 채집된 수로 환산하여 참진드기 지수(Trap Index; T.I. = 전체 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제공

2019년 8월 SFTS 매개 참진드기 월간 감시 현황



- 참진드기 지수(T.I.)가 123.0으로 4년 평균(2015~2018) 동기간(82.3) 대비 49.5% 높은 수준이며, 전년(2018) 동기간(154.2) 대비 20.2% 낮은 수준임.
- 금년 8월에는 전년대비 낮은 발생, 평균대비 높은 발생을 보임. 작년에 비해 평균기온과 평균최고기온이 1.1℃, 평균최저기온이 0.9℃ 낮았던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으로 판단됨.
- 월별 통계는 잠정 통계이므로 변동 가능

붙임 6

A형간염 홍보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발행일 : 2019.05.07

A형간염 알아보기

어떻게 감염 되나요?

- 대변을 통한 경구감염
-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음식 섭취
- A형간염 환자의 직접접촉

증상은 무엇인가요?

- 발열, 오한
- 피로, 무통
- 황달
- 메스꺼움, 구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 끓인 익혀 먹기, 덜 끓여 마시기
-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체스, 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받기

*고위험군 : 유행병 |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제를 자주 투여 받는 혈액병 환자 등
 직업별 | 의료인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의 노출을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생활별 |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여행자, 최근 5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의 접촉자

붙임 7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2017. 5. 1.

비브리오패혈증 예 / 방 / 하 / 기

vibrio vulnificus sepsis

01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0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03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킵니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합니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하여 익힙니다.
-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도수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

* 특히,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도록 합니다.
 *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이나 항암제 복용 중인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환자

붙임 8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KCDC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피부는 햇빛을 싫어하지만 진드기를 더 싫어합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 모자, 긴팔, 긴바지, 등산화
- 목수건, 장갑, 돗자리, 목이 긴 양말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숲 피하고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 에어건으로 진드기 털기
- 전신 샤워 및 진드기 털기
- 아외복 분리 세탁하기

발행일 2019. 9. 4.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방법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살펴보고! 찾아보고! 빨리 치료하고!

고열/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구토/설사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위험 활동 1~3주 후 발생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검은 딱지, 물린 자국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5명 중 1명 사망 (2013~2017년, 5175기호)
의심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발행일 2019. 9. 4.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 포스터>



풀숲 활동은 정말 조심하세요



<진드기 매개감염병 위험활동 포스터>